KIEP 북경사무소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2-09 / 2002년 9월 24일

중국 벤처투자의 발전 현황과 전망

장엔푸(姜彦福)

清華大學校 創業研究中心 主任 教授

1. 중국의 벤처캐피탈 및 벤처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 중국의 벤처투자는 1996년 이전까지는 시장을 탐색하는 과정에 불과함.

- 1985년 9월 정부의 출자로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경영하는 중국 최초의 기관인 중국신기술창업투자공사가 설립되었음.

- 1995년 全人代에서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법>이 통과되면서 벤처투자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되었고, 비로소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음.

o 이때까지 설립된 벤처투자기관은 20개 정도에 불과함.

□ 1997~1998년은 점진적으로 시장이 성립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음.

---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1998년 말 과학기술부는 <중국 과학기술 벤처투자 메커니즘 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하고 비준을 받았음.

o 또한 1998년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는 벤처투자의 발전을 가속화하자는 "1호 제안"이 제출되었음.

□ 1999~2000년에는 정부, 민간, 학술계가 벤처투자의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시기임.

- 이 기간에 새로 설립된 벤처투자기관이 모두 142개에 달하였음. 또한 국무원은 <중국 벤처투자메커니즘 건설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공포하였으며, <투자기업법>초안이 작성되었음.

o 2000년 10월에는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이부 시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하였음.

□ 2001년 이후 현재까지는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

- 2부시장의 개설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벤처투자기업의 설립 속도가 급속히 하락하였음.

o 2001년에는 <외상투자 벤처기업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이 공포되었으나 외국벤처캐피탈의 중국투자는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임.

o 그러나 이미 <국가산업기술정책>이 공포되었고, <벤처투자 회사 관리방법>의 초안이 마련되는 등 관련 법규의 정비는 계속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벤처투자회사는 1985년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가 설립된 이후 1994년까지 설립된 회사는 겨우 17개에 불과함.

- 이후 2001년 말 200개로 늘어났지만 최근 다시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투자회사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경, 상해, 심천은 평균 6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안, 남경, 항주, 천진, 광주, 성도, 무한이 각각 10개 내외를 보유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연도별 벤처투자회사 설립 현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벤처투자기관 총수	17	19	23	38	59	99	201	246
신설 벤처투자기관	6	2	4	15	21	40	102	45

자료: 중국벤처투자발전보고서

<표 2> 중국의 벤처캐피탈 현황(단위: 만 元)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벤처투자 총자금량	301,800	360,800	761,750	1,040,580	2,063,158	3,730,822	4,052,622
벤처투자 증가량	80,000	59,000	400,950	278,830	1,022,578	1,667,664	321,800
증가율	36%	20%	111%	37%	98%	81%	9%

자료: 중국 벤처투자발전보고서

□ 중국 벤처자본의 출자자는 1996년까지는 정부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및 외국인들로 다양함.

- 중국 기업의 출자 비중이 1996년 9%에서 2001년 37%로 늘어났고, 그 외 정부 벤처자본, 외자벤처자본, 금융기관벤처자본이 각각 34%, 22%, 4%를 차지함.

2. 중국 벤처캐피탈의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 중국의 벤처캐피탈은 우선 자금의 운영면에서 규범화가 필요함.

- 상당수의 벤처투자 업체가 벤처기업의 이부시장 상장을 목표로 설립되었지만 이부시장 설립 자체가 지연되면서 방향성을 상실하였음.

o 투자자금을 벤처업체가 아닌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투자회사가 자금을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벤처기업 육성이나 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임.

□ 외국인 벤처투자기업의 중국 진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함.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및 국가공상관리총국이 2001년 9월 공동으로 <외상투자 벤처투자기업의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외국인의 중국 벤처투자가 법규상으로는 가능해졌으나, 벤처투자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 법규와 규칙이 아직 미비한 상태임.

□ 2부시장의 무기한 연기로 대다수의 벤처투자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기존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부시장 상장을 포기하고 1부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임.
o 用友소프트웨어는 2부시장 상장계획을 포기하고 신속히 상해 A주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였음.
o 太太製藥도 2001년 6월 상해증시에 순조롭게 상장함.

- 둘째, 상장회사와 합병할 수 있음. 상장회사는 벤처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낡은 사업을 정리하고 첨단사업에 진출할 수 있음.

- 셋째, 주식권 양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함.
o 미국의 eBay가 중국 Eachnet의 주식 30%를 3,00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이 그 예임.

- 넷째, 홍콩을 포함한 외국의 2부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기는 하나, 기업공개 비용이 높아 실제로 신설 벤처기업이 추진하기는 쉽지 않음.

3. 벤처투자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 최근 수년간 한·중 양국의 무역은 비교적 높은 속도(연평균 40% 이상)로 늘어나고 있으며, 교류의 내용도 단순무역에서 무역, 인력자원, 자본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임.

□ 최근 몇 년간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변화로서는 한국의 대기업그룹이 연이어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해 자본과 기술의 우위를 중국의 노동력 우위와 결합해 유리한 경쟁지위와 시장환경을 쟁취하는 것임.

- 무역 측면에서의 활발한 교류에 비해 투자 분야에서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바 향후 자본차원에서의 교류 증대가 필요함.

□ 한·중간에는 산업 및 기술의 상호보완성이 높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한국은 기계제조, 네트워크, 반도체, 자동차 및 부속품, 전자 및 통신, 서비스 등에서 비교적 강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한다면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

□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도 높은바,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경향에도 맞음.

- 중국의 안정된 정치,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경제, 거대한 발전잠재력, 거대한 시장, 날로 개방된 경제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대정책은 중국투자에 대한 국제자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90년대 이래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5%를 초과함.

o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과에 비해 벤처투자의 역할은 아직 미약함. 미국의 경우 50% 이상의 벤처기업이 발전과정에서 벤처투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2%에 불과함.

o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업체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향후 다른 분야에 비해 벤처투자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벤처투자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다음과 같은 협력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먼저 투자모델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업차원의 협력방안: i)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해 중국내 프로젝트를 찾아 단독으로 투자 실시, ii) 한국 벤처투자회사와 중국회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단독 투자의 리스크 회피, iii) 중국계 관련기관과 같이 합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프로젝트에 투자, iv)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투자주식 인수, v)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를 발기하고 관리할 수 있음.

-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i) 중국기업이 한국 코스닥에 상장하는 메커니즘 구축, ii) 중국기업이나 한중협력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양국 정부가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투자 분야의 측면: i) 중국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실력있는 외자기업에 투자, ii) 1부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중국기업에 투자, iii) 국유기업의 민영화 프로젝트에 투자, iv) 중국기업의 기술합리화, 고도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있음. (***)